

누리는 게야.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마는 이 땅에서, 대다수 왕에 대한 기억조차 금세 영원한 망각 속으로 매몰되고 마는 이 땅에서, 덕성에 마련된 불멸의 기념비라네.

하지만 비르지니는 아직 존재해. 이 친구야, 지구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그러나 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자네가 알아야 하네. 인간의 어떤 기술도 물질의 가장 작은 입자까지는 소멸시킬 수 없을진대, 합리적인 것이자, 지각할 수 있는 것이자, 정을 나누고, 덕성을 지니고, 신앙심도 있는 것이 과연 소멸되었을까? 아무렴 그것을 감싸고 있던 요소들조차 파괴될 수 없는데? 아아! 만약 비르지니가 우리와 함께일 때 행복했다면 지금은 더욱더 행복하고말고. 이보게, 신은 존재한다네. 온 자연이 그렇다고 일러주고 있어. 내가 자네에게 그걸 증명해줄 필요도 없지. 정의가 두려운 나머지 정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간악함 밖에 없네. 하느님의 감정이 자네 마음속에 있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자네 눈앞에 있네. 그런데 자네는 그분께서 아무런 보답도 없이 비르지니를 그냥 내버려두시리라고 생각하는 겐가? 아무렴 그토록 고귀한 영혼에, 자네도 거룩한 예술임을 느꼈을 정도로 그토록 아름다운 형상을 입혀두셨던 힘과 동일한 힘이, 그녀를 파도에서 구출해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겐가? 자네가 알지 못하는 법칙으로 인간에게 현재의 행복을 마